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

김 정 원¹⁾

한국어린이보호재단

김 광 응²⁾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을 가해-피해에 따라 가해 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의 대인관계 성향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의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들로서 총 625명을 선정했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서 가해집단이 반항-불신적 성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성향이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차이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적절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해-피해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집단 따돌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1)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놀이치료사

2) 교신저자: 김광응,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kimkwang@dreamwiz.com

I. 서 론

청소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발전과 연결될 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한 상대를 골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소위 ‘왕따’ 현상은 그 빈도와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이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며, 청소년 관계기관에서도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집단 따돌림 현상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문화권에서도 집단 따돌림에 관한 심각성을 재빨리 인식하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집단 따돌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에서 1970년대 초 mobbing이라는 용어로 처음 시작되었고(Heinemann, 1973), 그 이후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Olweus, 1994). 이처럼 왕따 현상이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이 자아정체감 형성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인하여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김용태, 박한샘, 조은경(1997)의 조사

연구에서는 한 학급에서 56.9%의 학생이 피해경험을, 48.1%의 학생이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22.1%가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1998)의 연구에 의하면, 24.2%의 학생이 지난 일년간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외국의 경우, 영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Stephson과 Smith(1987)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약 23%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학생 자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대한 불만은 급속히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학교 교육 가운데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이치에 문제이며, 이는 94년도보다 19% 증가한 49%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김광섭, 1996)고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집단 따돌림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집단 따돌림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단 따돌림은 피해학생이 겪는 신체적·정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들과 방관자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은 이제 단순히 학생들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또래관계의 한 유형으로만 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학교나 여러 관련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빨리 이에 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Olweus(1994)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크게 피해 집단과 가해를 하는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피해

를 입는 집단은 다시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피해자(passive, submissive victim) 집단』과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하는 『성나게 만드는 피해자(provocative victim)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Perry, Kusel과 Perry(1988)는 피해자 집단을 ‘공격성이 낮은 피해자(low aggressive victim) 집단’과 ‘공격성이 높은 피해자(high-aggressive)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집단 따돌림의 가해-피해에 따라서 이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특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Arora, 1996; Rigby & Cox, 1996). 가해자들은 거의 불안을 나타내지 않거나 거의 평균에 가까운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지 않았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Olweus, 1984). 또한 공격적이고 다른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아동들은 나중에 범죄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개입된다는 연구결과(Lane, 1989; Olweus, 1994)들이 보고 되었다.

반면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의 특성은 더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조심스럽고 민감하며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ulton & Smith, 1994; Olweus, 1984). 또한 피해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고생하며, 자신과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보며, 자신이 바보 같고, 수줍음이 많으며,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Perry, Kusel & Perry, 1988; Salmivalli, Lagerspetz, Bjorkqvist, Osterman & Kaukiainen, 1996).

이춘재와 광금주의 연구(1999)와 이민아(1998)의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심리적인 특성의 차이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춘재와 광금주(1999)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해집단의 경우 사회적 수용이나 자기 가치감이 그다

지 낮지 않으며, 교사의 지지는 낮으나, 친구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과의 인기정도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가해-피해가 없는 집단과 비슷한 정도로 또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해집단은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였으며, 자기비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아(1998)의 연구에서도 피해집단이 가해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국의 연구결과들(Boulton & Smith, 1994, Olweus, 1984)과도 상당 부분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경험에 따라 청소년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특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집단 따돌림에 따른 가해-피해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치료적 개입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상담사례(구본용, 1997;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등)이거나, 가해 또는 피해 위주의 실태조사(김용태, 박한샘, 조은경, 1997;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서영주, 1999; 신규태외, 1999; 이춘재와 광금주, 1999; 황성숙, 1998 등)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이들을 구분 짓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치료접근이 어려웠다.

한편, Austin과 Joseph(1996)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 집단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으며, Slee(1994)의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 집단이 평균정도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이민아의 연구(1998)결과와도 일

치하는 부분이다. 이민아(1998)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의 피해학생이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인 영역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 즉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현경(1986)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개념형성에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송인섭(1989)은 동료집단과 대인관계는 자아개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가해-피해 두 측면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집단 따돌림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치료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가해, 피해,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가해, 피해,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차이

가 있는가?

3.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가해, 피해,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가해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성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피해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성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성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성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서울에 소재한 사,오,중,초,중학교 1, 2 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급당 7개 학급씩 총 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62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 1, 2 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신뢰롭게 보고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판단되었고, 청소년기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335명, 290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53.6%, 46.4%였으며,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315명(50.4%), 중학교 2학년이 310명(49.6%)이었으며, 형제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가 295(47.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둘째가 230명(3.2%), 셋째가 22명(3.5%), 넷째가 2명(0.3%), 외동이가 62명(10.0%), 막내가 10명(1.6%)의 비율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중에서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은 2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이 125명, 가해 집단이 32명, 피해집단이 31명으로 전체 연구대상 총 625명중 44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집단 따돌림 행동 척도

집단 따돌림 가해자 성향의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서 Neary와 Joseph(1994)이 개발한 집단 따돌림 행동 척도(Bullying- Behavior Scale)를 광금주와 이춘재가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해자 선별문항은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경험이 많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서 홀수 번호가 집단 따돌림 행동 척도이며, 3,7,9,는 반전 점수화하는 문항들이다. 광금주와 이춘재(1999)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가해자를 선별해내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77로 나타났다.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 성향의 집단을 선별하기 위하여 Callaghan과 Austin Joseph(1995)이 개발한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Peer Victimization Scale)를 광금주와 이춘재가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를 선별해내는 문항은 총 6문항이며, 4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서 짝수 번호가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이며, 2,4,8,10,12는 반전 점수화하는 문항들이다. 광금주와 이춘재(1999)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선별해내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하위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 집단 따돌림 행동척도와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를 하나의 척도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측정도구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선재(1996)가 변안한 Resenberg Self-Esteem Scale(RSES)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권장할 만한 도구(최보가와 전귀연, 1993)로 알려져 있다. RSES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선재(1996)가 사용한 척도를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선재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82였다.

대인관계성향척도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의 대인관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Leary(1957)의 대인관계 행동모형과 Schutz(1958)가 개발한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와 Krech(1962)등이 밝힌 대인적 반응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가 재구성한 ‘대인관계성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대인관계성향을 대인관계상황에서 맡은 역할, 사회적 관계, 표현성향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후, 다시 그 성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14개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각 요인별 6문항씩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그런 때가 없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언제나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한다. 각 하위요인에 따른 점수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이 자신의 대인관계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연구절차

본 조사는 15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해당학교(A학교: 250명, B학교: 235명, C학교: 247명)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연구의 목적과 측정도구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검사실시 요강에 따라 미기재 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대답한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우선 대인관계성향이 요인별로 묶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재확인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인관계 성향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집단별 대인관계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자아존중감을 잘 예측해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Stepwise)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자아 존중감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성향이 낮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네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는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가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피해집단의 순서로

표 1.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F
자아존중감 총점	2.25(0.30)a	2.04(0.39)b	2.06(0.33)b	2.30(0.38)a	18.08***

*** $p < .001$ () 표준편차

높았으며, 집단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8.08, p<.001$). 즉,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자신을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피해집단이 자신을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에 대해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대인관계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네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성향의 7개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중 지배-우월의 경우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독립-책임의 경우는 가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63, p<.01$).

대인관계성향에 대해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Duncan을 실시한 결과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보다 대인관계상황에서 독립-책임적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정-수용의 경우 가해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12, p<.001$). Duncan 사후검증 결과 가해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동정-수용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보다 동정-수용적인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교-우호의 경우는 가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66, p<.001$).

Duncan 사후검증 결과 가해집단이 다른 세 집

표 2.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성향 하위 요인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성향이 낮은 집단	F
지배-우월	3.05(0.55)	2.70(0.59)	2.81(0.52)	2.88(0.59)	2.45
독립-책임	3.36(0.59)a	3.09(0.47)b	3.06(0.54)b	3.22(0.59)a	3.63**
동정-수용	3.68(0.52)a	3.45(0.47)bc	3.30(0.57)c	3.56(0.54)ab	8.12***
사교-우호	3.94(0.55)a	3.45(0.79)b	3.44(0.66)b	3.58(0.58)b	5.66***
경쟁-공격	3.25(0.55)a	3.07(0.65)ab	3.17(0.65)a	2.89(0.64)b	7.33***
과시-도취	3.38(0.69)a	2.90(0.69)b	2.96(0.55)b	3.26(0.65)a	9.51***
반항-불신	2.98(0.40)a	2.81(0.69)b	2.86(0.47)b	3.09(0.51)a	7.21***

** $p<.01$, *** $p<.001$, () 표준편차

단 보다 대인관계 시 사고-우호적인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경쟁-공격의 경우는 가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33, p<.001$). Duncan 사후검증 결과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이 피해집단 보다 더 높은 경쟁-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으며, 피해집단이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보다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과시-도취의 경우는 가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피해집단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51, p<.001$). Duncan 사후검증결과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과시-도취적인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항-불신적 성향의 경우는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가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피해집단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21, p<.001$). Duncan 사후검증결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가해집단보다 반항-불신적 성향이 강하였으며, 가해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보다 반항-불신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가해집단은 반항-불신적 성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은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적인 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 집단 모두 동정-수용, 사고-우호적인 성향이 다른 대인관계성향에 비해서 강하였으며, 피해집

단은 동정-수용, 사고-우호적인 성향 다음으로 독립-책임적 성향이 강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이 피해집단의 경우에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는 피해집단만이 갖는 대인관계성향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과시-도취적인 성향은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에서만 나타난 대인관계성향임을 알 수 있었으며, 경쟁-공격적인 성향은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보인 대인관계성향으로 이는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만이 갖는 대인관계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결정요인을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집단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Stepwise)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제 변인들을 상호통제하여 설명변인들의 기여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고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인들만을 제시해주는 방법이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을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집단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성향 중 반항-불신($\beta=.21, p<.05$)성향이 자아존중감의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집단의 경우 대인관계 시 반항-불신적 성향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0% 였다.

표 3. 자아존중감의 설명변인에 대한 집단별 단계적 회귀분석

(N=445)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	
설명변인	β	설명변인	β	설명변인	β	설명변인	β
반항-불신	.21 [*]	지배-우월	.35 ^{***}	과시-도취	.10 ^{**}	과시-도취	.22 ^{***}
경쟁-공격	-.17	경쟁-공격	-.27 ^{***}	경쟁-공격	-.14 [*]	지배-우월	.17 ^{***}
동정-수용	.16	반항-불신	.13	지배-우월	.13 [*]	경쟁-공격	-.15 ^{***}
				사고-우호	.08	사고-우호	.09 [*]
						반항-불신	.07
모델 적합도	F=3.83 ^{***}	모델 적합도	F=22.94 ^{***}	모델 적합도	F=6.42 ^{***}	모델 적합도	F=30.31 ^{***}
누적R ²	.30	누적R ²	.73	누적R ²	.19	누적R ²	.39

* $p < .05$, ** $p < .01$, *** $p < .001$

2) 피해집단의 경우에는 지배-우월적($\beta = .35$, $p < .001$), 경쟁-공격적($\beta = -.27$, $p < .001$)인 성향이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공격적인 성향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대인관계상황에서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집단 모델의 설명력은 70%로 아주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과시-도취적($\beta = .10$, $p < .01$), 경쟁-공격적($\beta = -.14$, $p < .05$), 지배-우월적($\beta = .15$, $p < .05$)인 성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시-도취적, 지배-우월적인 성향이 가해-피해집단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경쟁-공격적인 성향은 가해-피해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4) 마지막으로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과시-도취적($\beta = .22$, $p < .001$), 지배-우월

적($\beta = .15$, $p < .001$), 경쟁-공격적($\beta = -.15$, $p < .001$), 사고-우호적($\beta = .09$, $p < .05$)인 성향이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과시-도취적, 지배-우월적, 사고-우호적 성향이 높을수록 가해-피해성향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면에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모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성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해집단은 다른 세 집단과는 달리 반항-불신적 성향만 유일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지배-우월적 성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과 가해집단의 경우에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집단 따돌림에 따른 모든 집단에 있어서 경쟁-공격적 성향이 높을수록 그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누구나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을 한 두 번 정도는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집단 따돌림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으나, 최근 입시위주의 기계적 교육, 몰인간화,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은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인격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집단 따돌림에 관한 일관된 개념 정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단 따돌림을 단순히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실태조사만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집단 따돌림의 경험유무에 따라 그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보다 폭 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단 따돌림현상을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 중 자아존중감에서의 차이와 이들의 대인관계성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해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피해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집단이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집단이 가해집단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선행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Sharp, 1996; Austin & Joseph, 1996; Olweus, 1994; Slee & Rigby, 1993; 이민아, 1998).

결과적으로 피해성향이 높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해집단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또래들로부터 피해집단보다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이 집단 따돌림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이 피해집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피해집단의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이 이들을 다시 가해집단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만, 이 때 성공적으로 가해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피해집단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도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집단 따돌림을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의 입장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들에게까지 관심을 확대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을 살펴보았는데,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적 성향을 제외하고는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성향 중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성향은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지니고 있는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 중에서 가해집단이 가장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해집단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동정-수용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성향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대인관계성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집단 따돌림에 따른 가해-피해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대인관계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인관계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시-도취적인 성향은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성향이 낮은 집단에서, 경쟁-공격적인 성향은 가해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는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성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대인관계성향으로 보여진다.

특이할 만한 것은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과 가해집단의 대인관계 성향이 같다는 것이다. 이는 가해집단이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과 비슷하게 또래집단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논의한 자아존중감에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되는 결과이다.

한편, 대인관계성향 중 각각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선 대인관계성향 중 타인에게 지기 싫어하고, 비판적이고 논쟁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쟁-공격적인 성향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즉, 이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경험이 높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싸움을 잘하는 등을 가해집단특성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김용태, 박한샘, 조은경, 1997; Rigby, 1993)들을 지지한다. 가해집단이 동정-수용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집단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면이 낮다고 가해집단의 특성에 관하여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김용태, 박한샘, 조은경, 1997; Rigby, 1993)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정-수용적인 성향이 집단 따돌림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많이 지니고 있는 대인관계성향으로 나타났다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집단별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해집단의 경우에는 반항-불신적인 성향이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집단의 경우 반항-불신적 성향이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해집단이 부적절한 대인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해집단의 심리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피해집단의 경우에는 지배-우월적인 성향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쟁-공격적인 성향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73%의 아주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인관계 성향 중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성향이 집단 따돌림 피해집단의 자아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과사-도취적, 경쟁-공격적, 지배-우월적인 성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집단과 마찬가지로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도 가해의 경험도 있지만 피해의 경험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과사-도취적, 지배-우월, 사교-우호적인 성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쟁-공격적 성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사-도취적, 지배-우월적, 사교-우호적인 성향은 높고 경쟁-공격적인 성향은 낮을수록 자신을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 관계 시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결과는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지배-우월적, 과사-도취적인 성향이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경쟁-공격적인 성향은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안범희(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성향이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적절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해-피해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이 갖는 대인관계성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가해집단, 피해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높은 집단, 가해-피해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 따돌림에 관한 개념정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집단 따돌림 발생률에 있어서 국내의 연구 자료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각 연구마다 개념정의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각각의 개념정의를 근거로 제작된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척도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본 연구는 단지 집단 따돌림의 가해-피해집단이 지닌 차이만을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성향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에 관한 인과적 관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거나 가하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과정을 계속 관찰하거나 아니면 현재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과거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는지를 역추적하고 그러한 경험이 현재 자신의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장기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집단의 경우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강함을 밝히었다. 그러나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모두 집단 따돌림의 가해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보고 된 바 있으므로 집단 따돌림 가해집단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집단 따돌림에 가해-피해에 따른 심리적인 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어왔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집단 따돌림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의 가해-피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적 접근 방법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집단에 따라 실시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이루어질 때 집단 따돌림의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받는 아이들. 서울시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광섭 (1996). 교육에 관한 문제 인식. 이지메,

주입식교육에 가장 불만. 새교육 대한교육 연합회.
김용태, 박한샘, 조은경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서영주 (1999). 청소년의 괴롭힘 실태와 실정법상 과제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규태 (1999). 청소년 집단따돌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이민아 (1998).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 곽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서울 집문당.
이춘재, 이시재, 곽금주(199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연구. 부천시.
전선재 (1996). 소년소녀 가장세대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척도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2호, pp.41-54.
황성숙 (1998).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rora, C. M. (1996). Defining bullying: Towards a clearer general understanding and more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Bulletin of the British*

- Psychological Society*, 17, 317-329.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66, 447-456
- Boulton, M. J.,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 Heinemann, P. (1973). *Mobbing*. Oslo: Gyldendal.
- Krech, D. et al.,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York: McGraw-Hill.
- Lane, D. A. (1989). Bullying in school: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51, 964-980.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Rigby, K. (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4), 501-513.
- Rigby, K., & Cox, I. (1996). The contribution of bullying at school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4), 609-612.
- See, P. T. & Rigby, K.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lmivalli, C., Karhunen, J., & Lagerspetz, K. M. J. (1996). How do the victims respond to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2, 99-109.
- Schutz, W. C.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Y: Rinehart & Company, Inc.
- Sharp, S. (1996). Self-esteem, response style and victimization: Possible ways of preventing victimization through parenting and school based training programm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7, 347-357.
- Stephenson, P., & Smith, D. (1987). Anatomy of the playground bully. *Education*, 18, 236-237.

A Study on the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of Adolescent with Bullying

Jung-Won Kim

Child Protection Fund

Kwang-Woong Kim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reveal the psychological traits of adolescent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he self-esteem and the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 through the research of the bullying, bullies and victi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first and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in A school 216, in B school 214 and in C school 195 students, total 625 middle school students are selected as the subjects. The devices of measurement for the research consist of self-reporting questionnaire and three scales are used - scale for the existence of the experience of bullying or victim, scale for self-esteem and scale for the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average, th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ANOVA, Duncan verifica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a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earch of the difference in self-esteem of the adolescent according to their bullying or victim, the students with lower propensity to bullying show the highest grades in the questions on self-esteem while the victims of the bullying show the lowest grades. Second, the bullying students show higher grades in every propensity of the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 except for the resist-distrust propensity. While the sympathy-accepting, social-friendly propensity is the most outstanding propensity to the interpersonal relations in every student regardless of the bullies and victims, independent-responsible feeling propensity appears only in the victims, ostentatious-intoxication propensity appears in the bullying students and hardly-bullying and victim students, and competitive-offensive propensity appears only in bullying or victim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 groups in the control-superiority propensity. Thir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s of the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self-esteem according to their bullying or victim, the influences differ a little in each group. In the bullying group, the resist-distrust propensity have effects on the positive thought of oneself. On the other hand, in the bullied group, control-superiority and competitive-offensive propensity are the predictional factors. And in the group which has the experience of both bullying and victim, ostentatious-intoxication, competitive-offensive and control-superiority propensities have effects on the self-esteem. Finally, in the group of hardly-bullying and victim students, ostentatious-intoxication, competitive-offensive, control-superiority and social-friendly propensities are the strong predictional factors. Especially here, the competitive-offensive propensit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in every group of the students.

Keywords: bullying, self-esteem,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